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2. 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 1. 11.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1)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강화

㉮ 부실위험 확대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추정방식 강화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시 과거 부도율 및 손실률을 토대로 미래 경제 상황을 반영한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이하 'PD') 및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이하 'LGD') 등을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일부 소매 자산군의 PD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부실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대신용손실에 기반한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

따라서 은행은 부실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매 익스포져의 자산군별 PD가 최근 실측부도율을 하회하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시기 바람

㉯ 신용 LGD 추정방식 강화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신용여신의 LGD 추정시 부분신용여신의 회수율을 반영

하기 위해 부분신용여신의 전체 회수금액과 부도시잔액에서 각각 담보부 회수금액을 차감하고 있으나,

회수금액에서는 현재가치 담보부 회수금액을 차감하고 부도시잔액에서는 명목금액을 차감하고 있어 신용여신의 LGD(=1-회수율)가 왜곡될 우려

신용여신 LGD 추정시 부도시잔액에서 현재가치 담보부 회수금액을 차감하는 등 합리적으로 신용여신의 LGD를 추정하시기 바람

㈐ 미래전망 예측모형 적정성 강화

은행은 과거 실측부도율과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모형화(이하 '미래전망 예측모형')하고 미래 거시경제 시나리오별로 PD를 추정하여 각 시나리오별 가중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PD(이하 '예측PD')를 대손충당금 산정에 활용하고 있으나,

20XX년 X월말 미래전망 예측모형을 변경하면서 변경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미흡하여 미래전망 예측모형 및 입력변수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이를 수정·보완하지 않고 업무에 그대로 활용하였음

또한 소매 익스포져는 리스크특성에 따라 주거용부동산 익스포져, 기타 소매익스포져(개인,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익스포져의 실측부도율 수준이 차이가 나는데도,

전체 소매 익스포져 대상으로만 미래전망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예측PD를 추정하고 있어 소매 익스포져별 실측부도율 수준 등 리스크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예측PD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

미래전망 예측모형 변경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소매 익스포져에 대해 리스크특성에 따라 예측PD를 세분화하시기 바람